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그림 · 문병성

과학과 종교의 대립과 화해

17세기 뉴턴의 자연현상에 관한 법칙화 이후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지만 현상세계와 인간 생활에 적극 개입하는 인격화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뉴턴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초기 조건을 알면 차후 운동의 상태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다는 견해)이 확립되고 19세기에 들어와 다윈의 진화 이론이 발표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기독교에 적대적이 되었다. 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양자물리학과 DNA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유전자 이론이 확립되면서, 종교(기독교)와 과학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독교적 사고에 의문이 제기되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리를 옹호하는가 하

면 전통적인 교리를 버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과학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다. 21세기가 되면서 과학자, 신학자,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근(2002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교육문화관에서 국내외 종교학자와 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과학, 신학, 그리고 동양종교들'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첨단과학과 종교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조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발표한 내용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신의 뜻과 사랑'이고, 종교는 '왜'를,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등 참가자들은 회의 내내 과학과 종교의 화해와 상호성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 어느 면에서는 인간은 점진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참고로 핵물리학을 전공한 이안 바버 교수는 2000년 그의 저서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김영사·2000)에서, 과학과 종교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분류하는 네 가지 이론 유형을 이용해 과학과 기독교, 창조와 관련된 대폭발, 양자론, 진화론과 창조론, 인간의 본질 및 하나님과 자

연에 관한 주제를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이는 종교 간의 대화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인들도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갈등이론'으로 성서문자주의자(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는 진화론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학적 증거는 유신론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독립이론'으로 종교

“환경·생명윤리문제 동양종교서 해결책” 종교인·과학자들 새로운 대화의 길 모색

단 생명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을 신과 같은 창조자의 지위에 올려놓았지만, 거꾸로 자연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에 과학자와 종교인이 함께 이 같은 문제에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종교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이 환경오염, 생명윤리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연에 관한 주제를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이는 종교 간의 대화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인들도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갈등이론'으로 성서문자주의자(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는 진화론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학적 증거는 유신론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독립이론'으로 종교

의 교리나 과학적 주장은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언어로 취급되나 과학과 종교의 두 가지 탐구는 이 세계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대화이론'으로 과학 연구영역의 한계에 이르러 과학 자체가 답할 수 없는 극한 물리 질문들이 제기될 때 비로소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특정한 과학 이론과 종교적 믿음 사이의 개념적인 유사성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는 '통합이론'으로 과학과 종교 간의 좀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동반자 관계는 두 원리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지기 때문에 연구실을 벗어나 윤리적인 측면 등 과학적 연구 이외의 일을 생각할 때 과학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혜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와 과학은 굳이 분류하자면 '독립이론'이나 '대화이론'의 유형 범주에서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불교인들은 우선 이를 지지하는 타 종교인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종교 간의 벽을 허물며, 해를 사건 같은 갈등 없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이어 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당선자 10%가 전과 보유

6·13 지방선거
■물을 건너는 길잡이
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입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중일야합경>
■나라의 중신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출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설사·건자소설경>
부처님은 한 사회의 지도자에 대해 "마하삼마디는 여러 사람에게 밝힌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 법을 밝힌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셨다. 오늘날의 선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위해 입찰 입찰을 뽑는 자리일 것이다. 우리는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4년여에 걸쳐 국민들에게 봉사할 사람을 뽑았다. 하지만 한가지 반갑지 못한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전체 9,172명 가운데 121%에 달하는 1,114명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9년 이래 재산, 소득, 종로세 납부실적이 전무한 사람도 774명(8.1%)에 달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 후보의 30%, 기초단체장 후보의 15.6%, 광역의원 후보의 12.1%, 기초의원 후보의 12.5%가 각종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 4,415명 중 10.7%인 47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집계했다. 각종 시민단체와 선관위 등이 '기피인물 1호'로 꼽았던 부패하거나 타락한 후보의 상당수가 당선된 셈이다. 부처님은 장야합경에서 지도자란 전담 등 재산 문제로 발생한 다툼과 분쟁을 판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 지도자가 먼저 법을 어겼다면 누가 주민을 보호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얼었으면

바로 쓸 뿐 또다시 이름에 집착하지는 않으니, 이것을 일러 '그윽한 뜻(女)'이라고 한다. 내가 설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설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누고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나는 편안히 앉아 있지만 도 배우는 이들이 찾아와 서로 만나볼 때면 나는 모조리 알아차려 버린다. 어찌하여 이러한가? 나의 견처(見處)는 달라서,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꿩을 보아서 다시는 의심하거나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一切唯心造), 만들어진 것은 고정된 것으로 남아 있지 않고 생주이멸의 무상(無常)한 변화를 겪는다. 마음은 생멸하는 인연법을 만들어내지만, 마음



그것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생멸하는 세계는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과 같다. 이처럼 5온·18계의 만법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결이 모두 물이듯이 만법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⑮

모양없는 마음자리
양 의 세계만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모양의 세계만을 알고 있는 범부는 다가오는 인연에 반응하되, 인연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그리하여 인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본래 마음자리 들면 언제나 여여

은 모두 마음이다. 마음은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으므로 마음은 생기고 없어지거나 커지고 작아지거나 더럽고 깨끗하거나 할 수가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5온·18계

고 불쾌한 생각과 느낌을 무작정 끊어 없애려고 한다.

불법을 알고 보면 모든 모양은 모양 없는 것 하나에 귀결된다. 모양 있는 것은 곧 모양 없는 것이다(五蘊皆空). 모든 모양 없는 것들이 곧 모양 없는 공인 뿐임을 통달한다면, 어떤 인연이 다가오고 어떤 경계에 마주하더라도 늘 변함없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쉬고 있을 뿐이다. 모양 있는 경계는 서로가 달라서 모두가 분별되고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모양 없는 공인 마음은 다를 수가 없어서 분별과 취사선택이 없다. 분별과 취사선택이 없는 모양 없는 마음 자리에 확고히 머물러 쉬면, 경계를 마주하여 아무리 눈·귀·코·혀·몸·의식을 사용하더라도 늘 여여부동(如如不動)하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일 아침 5시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의학+음양오행+신명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와 과일 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천대,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실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간(肝)

간지방간염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식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식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참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량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원거 97마리를 달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끓어올라 나온 기름이 스며들도록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한정섭법사와 함께하는 보현정사 불교 경전 강좌

보현정사에서는 한정섭 법사님을 모시고 매주 일요일 경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경전공부에 관심 있으신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2. 교육장소	보현정사
3. 개강일시 및 과 목	2002년 6월 2일 천 수 경 6월 9일 천 수 경 6월 16일 천 수 경 6월 23일 천 수 경 6월 30일 반야심경 7월 7일 반야심경 7월 14일 금 강 경
5. 지도법사	한정섭 법사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매주 3시(토) 중국어 교실 강좌 (회비 월 5만원)

※ 문의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P : (016)321-1080

보현정사 포교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 오는 병상중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공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 ▶ 교육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술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시는 분은 제외